

2024 대림 성탄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기대와 깊은 성찰로 가득한 시기인 대림의 문턱에 와 있는 지금, 우리의 눈길은 구원의 약속을 실현하시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눈을 뜨고 우리 앞에 있는 길을 보게 하십니다. 대림 시기는 짧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한 고요한 시간들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2025 년 희년을 위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기대가 더 커집니다. 희년은 쇄신과 감사의 시기이고 우리 창조주 하느님과 더 강한 친교를 갖는 시간입니다. 이 거룩한 시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강생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도록 초대합니다.

희년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이 희년을 쇄신과 화해를 위한 특별한 기회로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여정을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결합된 한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몇 번이나 내 공동체의 자매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까? 나의 생활 방식은, 내 자매들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열정을 전해줍니까? 친교의 정신으로 서로를 지탱해 주고, 우리의 짐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더 큰 기쁨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생각합시다.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상 안에서, 우리의 사명은 분열이 있는 곳에서 용서를 찾고, 상처들을 치유하고, 무너진 다리를 다시 건설하며, 정의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투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선포가 되어, 다른 이들이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치된 한 백성으로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기념하고 그 자비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자비와 연대성, 일치의 배경을 만들어가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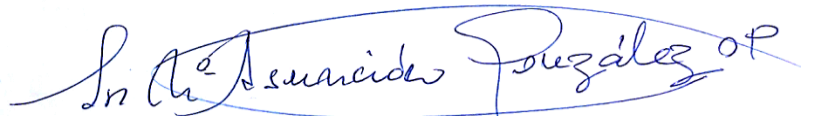
우리는 곤궁한 이들을 의식하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지와 사랑을 주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타네스에서 태풍을 겪은 우리 공동체와 형제들, 그리고 스페인에서 홍수에 희생된 가족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들에게 연대를 실천하고, 우리의 공동체적인 유대를 강화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세상의 일부이며 우리가 다른 이들의 삶 안에 어떤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합니다. 이것은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사람들의 삶 안에서 그분께서 가까이계심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의식하지도 못하면서 행하는 일상의 작은 선행들이,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대림환에 켜는 초 하나 하나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커짐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어둠을 물러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희망과 평화로 가득 채워줍니다. 우리의 희망이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퍼져 나가고, 어려움들 속에서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는 힘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모님께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동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의 믿음의 모범이 우리에게,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미리 느낄 수 있도록 감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대림과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포옹과 기도를 보냅니다.



총장 M^a Asunción González, O.P. 수녀